

A N I C K A Y I , C H E M I C A L C O N T A C T

WHEN SPECIES MEET PART 1
(SHINE OR GO CRAZY), 2016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47 CANAL,
NEW YORK, AND FRIDERICIANUM, KASSEL.
PHOTO BY FABIAN FRINZEL.

Contemporary artist Anicka Yi recently became the first Korean native to win the prestigious Hugo Boss Prize. Yi, who produces experimental pieces by incorporating elements of chemistry and microbiology, will have a solo exhibition at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next April.

아니카 이Anicka Yi의 작품은 생소하다. 꽃을 기름에 튀기거나(튀긴 꽃에서는 감자튀김 냄새가 난다고 한다) 박테리아를 채집해 배양시키고 핸드메이드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태운 뒤 이것을 '망각Forgetting의 향'이라 이름 붙인다. 얼핏 보기엔 기이함에 가깝다. 작품 만큼 국내에서 아니카 이의 이름도 생소하다. 그녀가 지난 10월 영국의 터너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현대미술상으로 꼽히는 '휴고 보스 프라이즈 Hugo Boss Prize'를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면 스쳐 지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흥미롭고 재능 넘치는 현대미술가를 말이다.

휴고 보스 프라이즈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를 후원하기 위해 1996년 휴고보스와 구겐하임미술관이 손잡고 제정한 격년제 예술상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구겐하임미술관의 수석 디렉터와 미술계 전문가 등 5명이 후보 6~7명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다음 해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 달러와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인 작가로는 이불과 구정아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는데, 최종 수상자로는 아니카 이가 처음이다.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한국 작가로는 백남준, 이우환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현대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타시타 딘Tacita Dean, 단 보Danh Vo도 모두 휴고 보스 프라이즈 수상자다. 휴고 보스상 심사위원은 "과학과 기술 등을 동원해 만들어내는 아니카 이의 실험 예술은 예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사한 감각적 경험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니카 이는 두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대학에서는 영화 이론을 전공했고, 2008년 현대미술 작가로 데뷔하기 전까지 패션 스타일링, 매거진 아트 디렉터, 카피라이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식재료, 박테리아, 세포, 식물, 부패를 막을 수 없



7,070,430K OF DIGITAL SPIT, KUNSTHALLE BASEL.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KUNSTHALLE BASEL,
AND 47 CANAL, NEW YORK. PHOTO BY PHILIPP HANGER





7,070,430K OF DIGITAL SPIT, KUNSTHALLE BASEL.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KUNSTHALLE BASEL, AND 47 CANAL, NEW YORK.
PHOTO BY PHILIPP HANGER

고 생명력도 짧은 이 재료들을 다루며 아니카 이
는 '반과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나는 언제나 보
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부패하기 쉬운 것과
아닌 것을 실험한다. 또 특정 물질이 다른 물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한다. 그래서 나는 화학
을 배워야 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과학이 내 관
심사가 됐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드디어 한
잠재력 있는 여성 작가가 훌륭한 호기심을 가졌
다며 두 팔 벌려 환영했겠는가. 물론 아니다. "내
가 다루는 재료들, 글리세린 비누나 기름에 튀긴
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과학자들의 도움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MIT
에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완전히 무시당했다."

아니카 이가 2014년 MIT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 'Visiting Artists Program'의 작가로 선정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현대미술을 화학과 미생물의 영역으로까지 확대
하는 프로젝트를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
게 됐다. 그 프로젝트들은 기존 예술계에서 흔히
봐온 철근으로 이뤄진 '차가운, 기계적인, 남성 지
향적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에초에 그녀는 왜 '향에 집중하게 된 걸까? "나
는 항상 감각을 재정의하고 싶어 했다. 특히 서
구 사회는 시각적 감각에 과도하게 지배당한다
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각적 피로를 느낀다. 인터
넷을 하더라도 쏟아지는 이미지 탓에 더 이상 무

언가에 집중하기도 힘들다. 우리에게 도구가 주
어졌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는 향(냄새)이
부피가 커서 조각물과 비슷하다고 봤다. 관객이
그저 JPEG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갤러리에서 직
접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작품으로 끌어들이
고 싶었다." 아니카 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시
각'에 과도하게 특권을 부여하고 우선시함으로
써 많은 지혜와 지능을 놓쳐왔다고 말한다. 그리
고 그 시각이 권력과 남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한다. "냄새는 장기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와 주관에 가려져 있다. 냄새에도 객관
적인 것이 있다. 다만 말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바로 이 점이 포인트다. 뭘든 어려운 것이라면 미

COOPERATION_47 CANAL_47CANALUS

스터리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적인 것이라 결
론짓는다." 지난해 열린 〈You Can Call Me F〉는 이런 그녀
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전시였다. 전시는 감
염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 단체에 대한 무시라는
두 가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했다. "예술계에는
여성이 더 많지만 소수만 버틴다. 생존 매커니즘
은 권력과 힘을 합칠 때 나타나는데, 남성에게 끌
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예술계의 경쟁
적 성격을 띠는 장소에서 여성이 한테 뭉치지 못
하는 모습을 보고 좌절했다. 또 내 작품이 여성
적이라고 수없이 비난받아왔다. 이것은 무언의
비유다. '더 남성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팔릴

거야. 이건 너무 약해. 더 차갑고 형식적인 작품
을 만들어야 해' 같은 메시지다. 나는 이를 손가
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이 문제들이 왜 존재하는
지를 논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니카 이는 전시장
내에 임시 연구 부스를 만들고 여성 100명에게서
체내 세포를 얻어 여기서 채집한 박테리아를 사
용해 '어떤 냄새를 퍼뜨리는, 그리고 관객이 그 냄
새를 맡게 하는 설치미술을 선보였다. 그녀가 박
테리아를 다루는 이유는 명료했다. 생명의 기원
이기 때문이다. 또 어머니와 여성을 상징하기 때
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니카 이는 페미니즘 작가인가 하는
궁금증이 조심스레 일기 시작할 때쯤 그녀의 답

을 발견했다. "내 작품에 여성적 요소가 많은 것
은 사실이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기에 시작이 늦어진 것뿐, 좋은
작품을 만들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흥미가 더
해지면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무척 힘들
었다. 기름에 튀긴 꽃을 보고는 대체 이게 무슨
예술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작품들이 모
두 팔렸고, 컬렉터들은 내가 더 많은 작품을 만
들길 원한다. 그러니 당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다." 현재 아니카 이는 내년 4월에 구겐하임미술
관에서 열릴 개인전 준비로 매우 분주하다.